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소식을 자주 올려야 하는데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가페사역이 주님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이상기온인지 네팔도 너무 덥고 우기철이라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붕 괘 되고 곳 곳마다 물이 고여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시골이나 지방 내려가는 곳은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막혀서 다닐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어려운 일 들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가페 홈 소식 전합니다.

아가페 홈에서 자라난 에스더 (18세) 영이(17세)가 벌써 12학년 고3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기전에 한국처럼 수능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에스더 영이가 고3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 사함을 전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이, 에스더 모습

영이는 네팔에서 국가대표 탁구선수활동을 하면서 대학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에스더는 내년

에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가려고 한국어 토픽준비와 ILTES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은 동생들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는 한 동대에서 1학기 마치고 방학동안 한국 문화도 익히고 여러가지 경험도 하면서 방학생활을 잘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다시 한동대에 내려가서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삭이 가 방학기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Hopes Table Tennis Academy (홉스 탁구교실) 소식입니다.

홉스 탁구교실은 주님안에서 선수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 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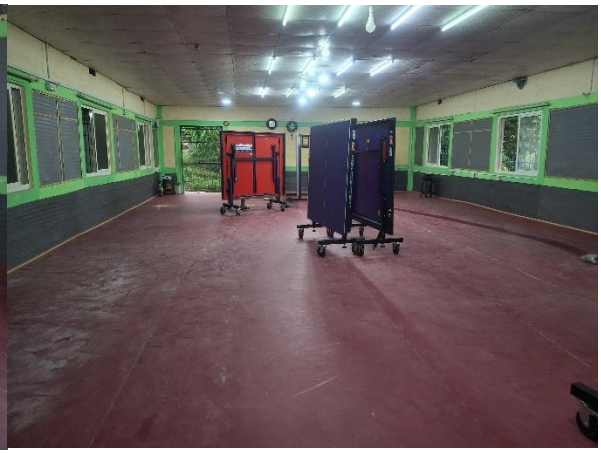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3개월간 시간별로 나누어 지역 생활탁구프로그램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3개월기간동안 많은 지역 학생들 어르신들이 신나가 탁구를 배우고 그 안에 유망주도 발견하여 지역 주민센 타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남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홉스 탁구교실에서 두명의 네팔탁구 대표선수인 영이 와 히 말 선수가 6월25일에 우주베키스탄에서 열린 아 시아 주니어 챔피온쉽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선들을 비롯하여 아시아 권 여러 선수들을 만나고 기술을 보고 배우고 왔다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베키 스탄에 다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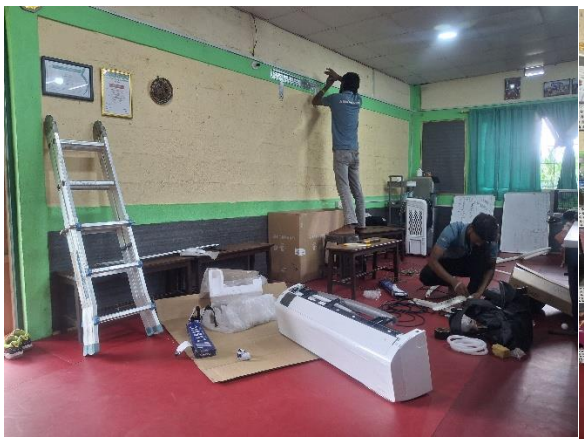
네팔 8월27일부터 열린 네셔날 주니어(U-15, U-19) 탁구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전국에서 135 명 학생들이 참가한 데 U-19세 여자 단식에서 영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홉스 탁구교실에 서 대회 출전한 히 말선수는 남자19세 단식에서 3등 하고 엠믈린 선수는 여자 15세 단식에서

3등 했습니다.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영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이 위하여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홉스 탁구교실 바닥공사도 하였습니다. 탁구교실바닥이 시멘트인데 그 위에 탁구 카페트를 깔고 운동을 했는데 겨울엔 찬기가 올라오고 무릎이 아프곤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고 광운대학교 아시는 교수님께서 바닥에 곽 목을 깔고 합판을 올리고 카페트를 깔면 선수들이 오래 운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교수님께서 도와 주셔서 탁구장 바닥을 새롭게 공사를 하고 실내도 단장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운동할 때 무릎이 아프지 않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네팔에 여러 나라에서 함께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책임자로 저희 아시는 분께서 네팔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탁구장을 둘러보시고 더운데 어떻게 운동하냐고 하시면서 탁구장 안에 에어컨과 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좋은 Dispenser를 후원 해주시고 또 다른 에어컨도 해마다 네팔에 의료봉사로 함께 해주시는 의사선생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선수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좋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네팔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역자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에 7월28부터 8월1일까지 영락교회 고등부 아웃리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포함하여 37분이 다녀갔습니다. 영락교회는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네팔에 선교사로 나올 때까지 기도와 말씀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곳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영락교회에서 고등부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아웃리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설레 이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팀들이 오셔서 저희가 돕고 있는 발 꾸마리 학교와 홉스 탁구장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부족한 저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하여야 겠다 하는 다짐도 했습 니다. 학교에서의 사역은 정말 학생들과 우리 팀들과 한마음이 되어 어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향기가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웃리치 팀들이 네팔학생들을 섬기 는 모습은 잊지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홉스 탁구장에 오셔서 선수들과 함께 하시고 맛있는 저녁 에 선물 마지막 기도까지 할 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포 카라 에서의 밤 또한 잊지 못합니다. 학생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금 더 서로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모습 을 바라보며 저도 좀더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 는 마음을 가지며 다시 또 한번 배웠습니다. 마지막 포 카라 산장에서 내려오는 새벽에 우기철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눈 덥힌 산 히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산을 열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팀을 사랑하시고 네팔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한지 21년이 되었는 데 뭐 라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 사랑을 영락교회 고등부 아웃리치팀을 통하여 다시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팔에 빈민들과 인도에서 살기 힘들어서 강가주변에 모여 사는 곳에 다일공동체에서 사역하는 밥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팀들이 밥을 나누어 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주며 돕는 봉사를 했습니다.

발 꾸마리 학교사역

홉스 탁구교실 사역

포 카라에서 본 히 말입니다.

밥퍼 사역입니다.

늘 아가페를 사랑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동역자 님들이 계서서 네팔에서 오랜 시간동안 네팔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네팔이 좀더 살기 좋은 나라 가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네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2. 에스더(여 18세) 영이(여 17세) 가 이번 고3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영이는 네팔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에스더는 한국으로 유학하려고 준비 중인 데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에스더 영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3. 아가페 홈 홉스 탁구교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안에서 잘 운영되어지도록 믿지 않은 친구들이 홉스 탁구교실에서 영혼 구원받아 믿음에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4. 저희들 돕고 있는 스탭들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말씀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자들이 되도록
5. 홉스 탁구교실과 아가페 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정이 채워지도록
6. 홉스 탁구교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열심히 탁구를 가르쳐 네팔에 탁구 꿈나무들을 배출하수 있는 코치를 모실 수 있도록
7. 지금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믿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으로 기도로 협력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 넘 치 시길 기도드리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30일

네팔에서 장 언순/고 연희 선교사 올림